

# 로제 “꿈을 쫓던 16살의 제게 바친다”

## 비디오뮤직어워드 2관왕, ‘아파트’ 올해의 노래 수상

블랙핑크 로제가 MTV비디오 뮤직 어워드(VMA)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로제는 7일 뉴욕 UBS 아레나에서 열린 ‘2025 MTV VMA’에서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듀엣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다. K팝 아티스트가 VMA 주요 부문인 ‘올해의 노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블랙핑크는 ‘베스트 그룹’까지 수상해 로제는 두 개의 트로피를 동시에 거머쥐었다. 블랙핑크가 베스트 그룹을 받은 것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 MTV VMA 2025 ‘올해의 노래’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로제. 사진=AP/연합뉴스

위기를 따뜻하게 했다.

또 다른 멤버 리사는 도자캣, 레이와 함께 부른 ‘본 어게인’으로 베스트 K팝을 수상했다. 리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통산 세 번째로 이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 불참한 그녀는 사전 촬영 영상에서 “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곡을 특별하게 만들어 준 도자캣과 레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이날 총 세 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날 첫 ‘문 피플’ 트로피를 받으며 ‘이제야 첫 VMA라니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 거냐’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다.

레이디 가가는 이날 1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돼 4관왕에 올랐다.

### ■ 주요 수상자 명단

- 올해의 비디오: 아리아나 그란데 - “Brighter Days Ahead”
- 올해의 아티스트: 레이디 가가
- 올해의 노래: 로제 & 브루노 마스 - “APT.”
- 최우수 신인: 알렉스 워렌
- 최우수 팝 아티스트: 사브리나 카펜터
- 최우수 앨범: 사브리나 카펜터 - “Short n’ Sweet”
- 최우수 힙합: 도에지 - “Anxiety”
- 최우수 R&B: 머라이어 캐리 - “Type Dangerous”
- 최우수 컨트리: 매켄 모로니 - “Am I Okay?”
- 최우수 K-팝: 리사 ft. 도자캣 & 레이 - “Born Again”
- 최우수 록: 콜드플레이 - “All My Love”
- 최우수 라틴: 사키라 - “Soltera”
- 최우수 아프로비츠: 타일라 - “Push 2 Start”
- 여름을 대표하는 노래: 타이트 맥레이 - “Just Keep Watching (From F1 The Movie)”
- 최우수 그룹: 블랙핑크

금빛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로제는 “믿기지 않는다”며 “가장 먼저 저를 믿어주고 함께해 준 브루노 마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트로피를 꿈을 쫓던 16살의 제게 바친다. 지금 이 순간은 그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기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상 소감 도중 한국어로 “테디 오빠, 저 상 땀어요. 블랙핑크 멤버들,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전제 현장분

올해 최고상인 ‘비디오 오브 더 이어’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브라이더 데이즈 어헤드’가 차지했다. 레이디 가가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등 4관왕에 올라 최다 수상자가 됐다.

머라이어 캐리는 20년 만에 VMA무대에서 금빛 의상을 입고 히트곡 메들리를 선보인 뒤, 아리아나 그란데로부터 평생공로상인 ‘비디오 벵가드 어워드’를 수상했다. 캐리는

# ‘폭풍의 언덕’ 예고편 선정성 논란

## ‘백인 남자 주연 원작 의도 어긋나’ 주장도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이 새롭게 영화로 제작되면서 캐스팅과 마케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마고 로비와 제이컵 엘로디가 주연을 맡은 이번 작품은 지난 3일 첫 예고편이 공개된 직후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소설의 무대는 18세기 영국 요크셔 황무지로, 중산층 연소 가족과 상류층 린튼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연소 씨가 리버풀에서 데려온 고아 히스클리프는 딸 캐서린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지만, 아들 헨리리의 학대로 하인 신세로 전락한다. 결국 캐서린은 사랑하는 히스클리프 대신 신부 상을 위해 부유한 린튼과 결혼하고, 상처받은 히스클리프는 집을 떠난 뒤 복수심에 불타 돌아오게 된다.

가장 큰 논란은 히스클리프의 인종적 정체성 문제다. 원작에서 그의 출신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학자들은 브론테가 흑인 혹은 혼혈 인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브론테 작가센터의 마이클 슈투어트 소장은 “원작 속 묘사에는 히스클리프가 ‘검은 피부의 집시’, ‘인도나 동

남아 선원’을 뜻하는 라스카르(lascar) 등으로 표현돼 있어 백인으로 보는 것은 원작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브론테 연구 학술지 편집장 클레어 오컬러헌 역시 “히스클리프가 외부인으로서 받는 차별은 인종적 학대의 은유로도 읽힌다”며 “백인 배우 기용은 작품의 핵심 맥락을 약화시키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1년 안드레아 아널드 감독의 영화는 처음으로 흑인 배우 제임스 하우슨을 히스클리프로 캐스팅한 바 있다.

또 다른 논란은 예고편의 선정적 마케팅이다. 이번 티저는 찰리 XCX의 곡 ‘Everything Is Romantic’에 맞춰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격정적인 장면을 강조하며, 일부 팬들은 이를 “과도하게 성적”이라며 비판했다. ‘폭풍의 언덕’을 ‘하얗게 세탁된 선정적 로맨스’로 만든 것은 원작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는 온라인 반응이 대표적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예술적 해석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캐스팅 디렉터 카멜 코크레인은 “영문학 팬들이

반발할 수 있겠지만, 결국 소설은 허구이고 영화는 예술적 해석의 결과”라고 밝혔다.

날말퍼즐 정답						
1 상	계	2 탕		3 통	나	4 무
발		5 감	언	6 이	설	명
7 이	8 산			9 따		부 실
				10 음	배	지
		11 수	형	12 생		깡
13 오	전		채		14 이	15 자
선		16 임	기	응	17 변	맥
18 지	원	자			19 고	자 질

**통증 전문  
치료 병원**

#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31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각종 보험	교통사고
<p><b>지정병원 IPA</b> (서울메디컬, 센터, 초이스원) <b>메디케어 보험</b> Wellcare, Humana UnitedHealthcare, Scan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Clever Care Health Net, Central Health Astiva, Brand New Day, Kaiser</p>	<p><b>오바마 케어</b>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b>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b>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p>	<p><b>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b></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무료 상담! 전화주세요!</p>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문자** 714.600.2610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